
CHAPTER 01



한글 이야기

1. 한글 창제



한글은 특별하게도 언제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자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알아볼까요?



세종대왕(1397-1450)은 조선시대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현명하고 학구적이며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어 문자로 받아 적었던 우리의 글말은 지배 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어려운 중국어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에 세종은,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어 입말을 쉽게 옮길 수 있었고,
배우기에도 쉬웠습니다.



세종은 1446년 10월 9일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그 이후,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소외 계층이었던 여성들까지도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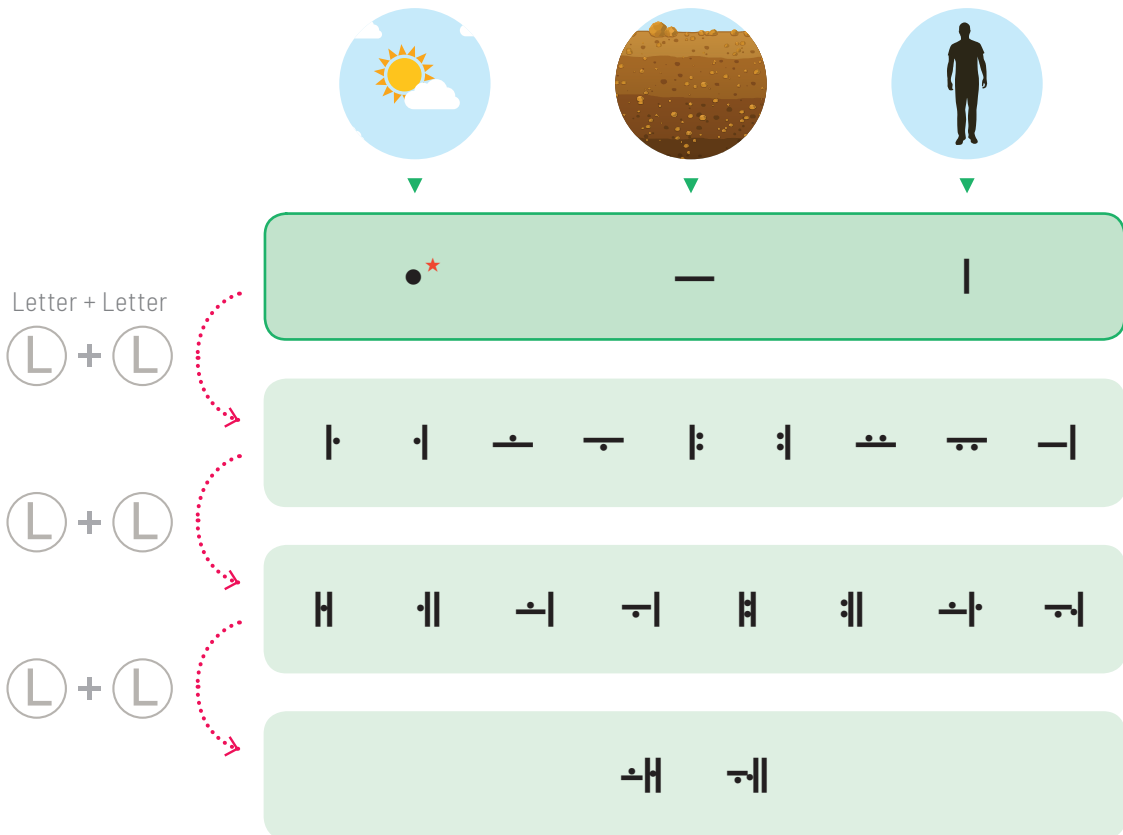
★ '한글'은 한국어의 글자를 말합니다.

2. 한글

모음

모음은 각각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세 가지 기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음들은 이 기본자들을 합하여 만들어집니다. 글자가 합쳐질 때에는 모양뿐만 아니라 소리도 합쳐집니다.

기본자를 합하여 새로운 모음 글자를 만들어 내는 방법은 워크북 4~5쪽을 참고하세요.



★ 처음 창제된 글자 중 몇 개는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음

자음은 다섯 개의 기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자들은 해당 자음을 발음할 때의 발성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자음들은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혹은 두 개의 자음을 나란히 늘어놓아 만들어졌습니다.

Letter + Stroke

ㄴ +

Letter + Letter

ㄴ ㄴ

ㅁ	ㄴ	ㄷ	ㄹ	ㅇ
ㅂ	ㄸ	ㄹ	ㅈ	
ㅍ	ㅍ	ㅋ	ㅊ	ㅎ
ㅃ	ㄺ	ㄻ	ㅆ	ㅄ

3. 음절 구조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가상의 네모 상자 안에 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만듭니다.

모음은 혼자서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함께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모음이 혼자서 쓰일 때에는 음가가 없는 ‘ㅇ(이응)’과 함께 적어 줍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자음들을 모음 ‘으’와 함께 제시하였는데, ‘으’가 자음 자체의 소리를 잘 드러내주는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글은 한 글자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은 모음과 자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V = 모음, C = 자음)

• V

Ex. (ㅇ) + ㅏ

• C + V

Ex. ㄱ + ㅏ, ㅂ + ㅓ

• V + C

Ex. (ㅇ) + ㅊ +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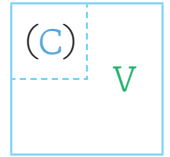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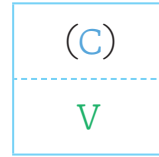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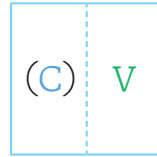
• C + V + C

Ex. ㅅ + ㅓ + ㅇ, ㄷ + ㅓ + ㄱ

음절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음은 ‘받침’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를 상자에 넣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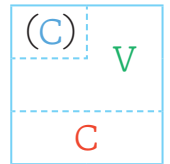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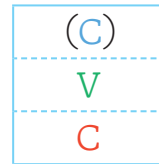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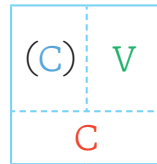
• (C) + V

Ex. 아, 구, 뷔



• (C) + V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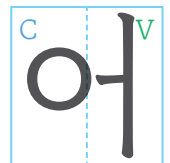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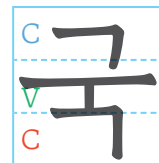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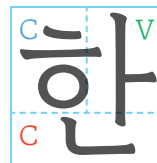
Ex. 성, 독, 완



당신이 알고 있는 단어 하나를 분석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어’. ‘한국어’라는 단어는 3음절 단어이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 한국어

- ㅎ + ㅏ + ㄹ → 한
- ㄱ + ㅓ + ㄱ → 국
- ㅏ → 어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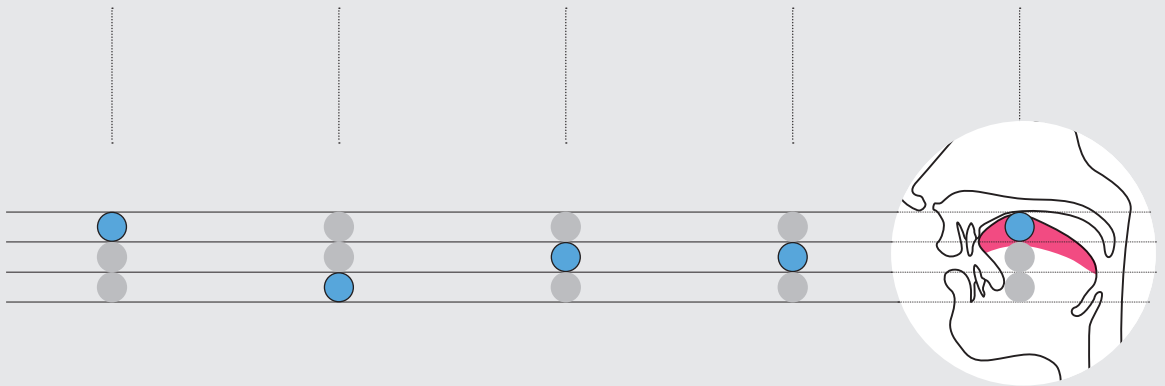
한글 익히기



for MP3

of Chapter 2. Learning Hangeul

시작하는 소리와
끝나는 소리가 변하지 않아요.






★ 단모음 '외'와 '위'는 실제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돼요.

🔑 Pronunciation Tip

혀가 당신의 입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느껴 보세요.
그와 동시에, 혀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입천장 앞에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 Pronunciation Key

Chapter 10에서 보았듯이 모음 글자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모음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단순히 형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모음 ‘ㅞ’는 ‘ㅓ’와 ‘ㅣ’가 합쳐진 것이라고 할 때 ‘ㅞ’는 ‘ㅓ’와 ‘ㅣ’의 모양뿐만 아니라 소리 또한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아’를 발음할 때처럼 입을 먼저 벌리고[] 그 다음 그 벌어진 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애’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모음이 형태적으로 음성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게 된 지금, 당신은 ‘ㅞ’와 ‘ㅟ’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ㅞ’는 ‘ㅓ’에서 시작하고 ‘ㅟ’는 ‘ㅓ’에서 시작하여, 발음할 때 입이 벌어지는 정도나 혀바닥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 하지만 현재에는, 그 두 모음의 발음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현대 한국인들 또한 그 둘을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

실제 발음과 다른 모음이 두 개 더 있다. 단모음 ‘외’와 ‘위’는 원래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모음이 이어진 하나의 소리로 발음된다. 실제로 ‘외’는 ‘오-에’나 ‘우-에’로, ‘위’는 ‘우-이’ 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외’와 ‘위’를 현실 발음인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것이다.

🔊 Listen and compare the sounds. _TRACK 11

1. 단모음 외 : 이중 모음 외
2. 단모음 위 : 이중 모음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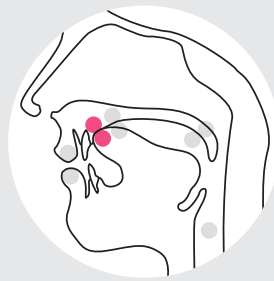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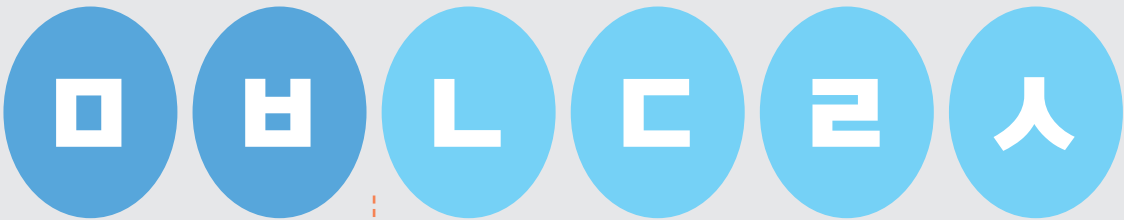


• 평음 / 유음 / 비음

ㅂ ㄷ ㅅ ㅈ ㅋ ㅎ

ㅁ ㄴ ㄹ 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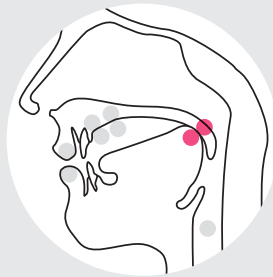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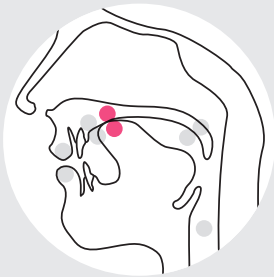
ㄴ



🔊 Listen and repeat them back to back.

ㅁ ㅂ ㄴ ㄷ ㄴ ㅅ ㅈ ㅋ ㅎ

자음은 혼자 쓰일 수는 없으니
모음 '으'와 함께 읽어 주세요.



★ '오'은 음가가 없어서, 여기에서 제시한 발음 위치는 '오'이 받침으로 발음될 때의 위치예요.
(92쪽 참고)

🔑 Pronunciation Tip

발음 위치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껴 보세요!

🔑 Pronunciation 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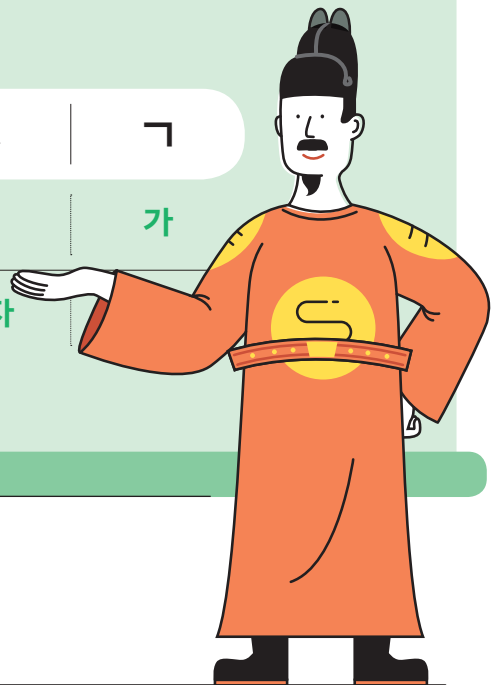
많은 언어들이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에 따른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로 자음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모음이나 자음 중의 [b], [v], [d], [z], [g], [m], [n], [l], [r] 등은 유성음이고, 성대를 울리지 않고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를 내는 [p], [f], [t], [s], [k]는 무성음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로 자음을 변별하는 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는 성대가 울리지 않는 첫음절의 '가'를 무성음으로 인식하여 '카'로 듣고, 성대가 울리는 상황에서의 '가'는 '가'로 듣는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은 소리로 본다.

소리의 구별을 위해 같은 글자가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았으니, 잘 듣고 두 글자가 같은 하나의 글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 Listen and compare the sounds. _TRACK 11

	ㅂ	ㄷ	ㅈ	ㄱ
Unvoiced	바	다	자	가
Voiced	아바	아다	아자	



STEP 0 | Preview

★ ‘ㅂ, ㄸ, ㅆ, ㅈ, ㄱ’의 예시 단어는 우리가 앞서 ‘ㅂ, ㄸ, ㅆ, ㅈ, ㄱ’(p. 39)의 예시 단어로 본 것과 같은 단어이다. 한국어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적을 때에는 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규칙이 있다. 하지만 그 영어 단어의 실제 소리는 경음과 더 비슷하다. 다시 말해, 외래어의 경우 ‘ㅂ, ㄸ, ㅆ, ㅈ, ㄱ’로 기재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발음은 ‘ㅂ, ㄸ, ㅆ, ㅈ, ㄱ’ 소리에 더 가깝다.

· 격음 / 경음

표, 트, 츳,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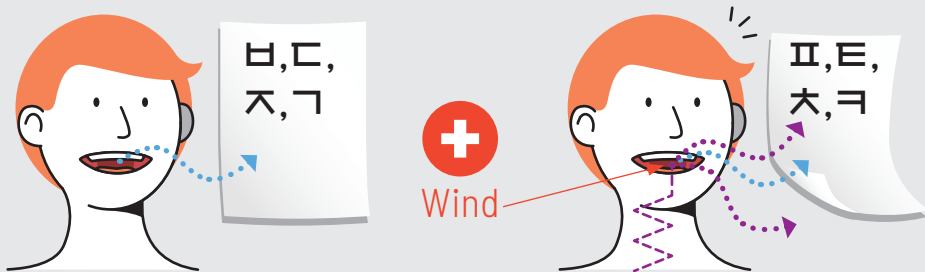
브, 드, 쓰, 쯔, 끼

표

트

츳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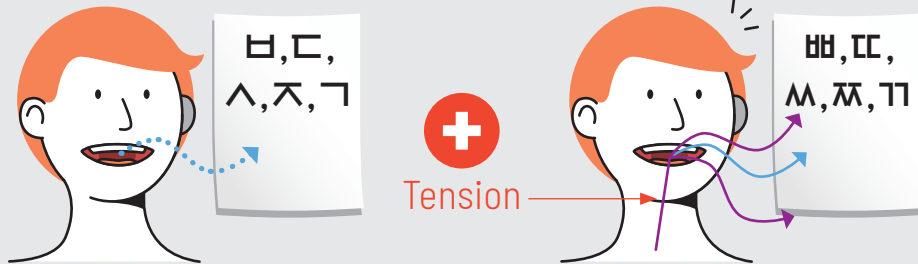
▶ Listen and repeat them back to back.

표 트 츳 크 브 드 쓰 쯔 끼

🔑 Pronunciation Tip

폐에서부터 공기가 나가는 곳까지 힘을 끌어 올려 아주 거친 숨을 내뿜도록 합니다. 입 앞에 손바닥을 대어 강한 날숨을 느껴보세요.

이 글자들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음들과
생긴 것과 소리가
아주 조금 다르다.



배를 단단히 하여 성대에 힘을 주고 성문을 좁히세요. 그리고 평음을 발음할 때보다 더 빠르게 숨을 뱉어 단단한 소리를 내 보세요.

🔑 Pronunciation Key

평음은 별다른 근육의 긴장을 수반하지 않아요. 온몸에 힘을 풀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발음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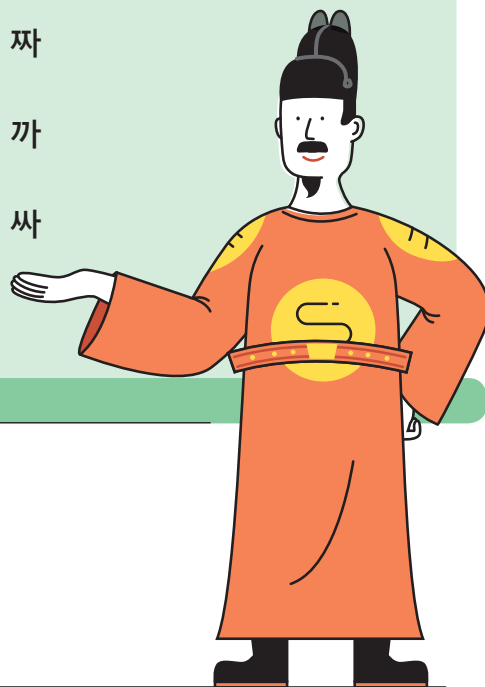
경음은 목청에서부터 날숨을 거세게 내뿜으며 거칠게 발음하세요. 정 안 되면 침을 튀긴다는 생각으로 발음해 보세요.

격음은 힘을 주어 날숨이 나오는 구멍을 더 세게 좁혀서 강하게 발음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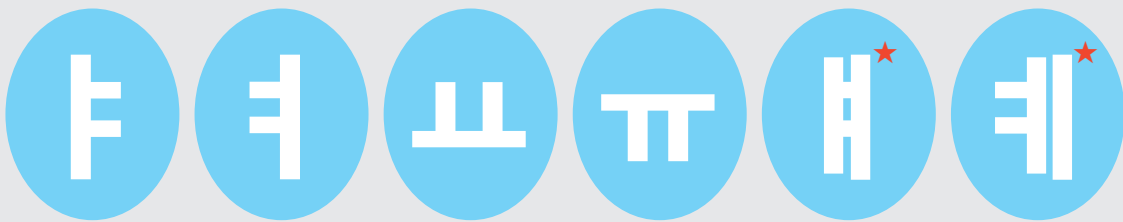
평음과 경음과 격음을 나란히 비교하며 들어보세요.

🔊 Listen and compare the sounds. _TRACK 10

	Plain	Aspirated	Glottalized
ㅂ	바	파	빠
ㄷ	다	타	따
ㅈ	자	차	짜
ㄱ	가	카	까
ㅅ	사		싸



• 이중 모음



Initial Letter



Ending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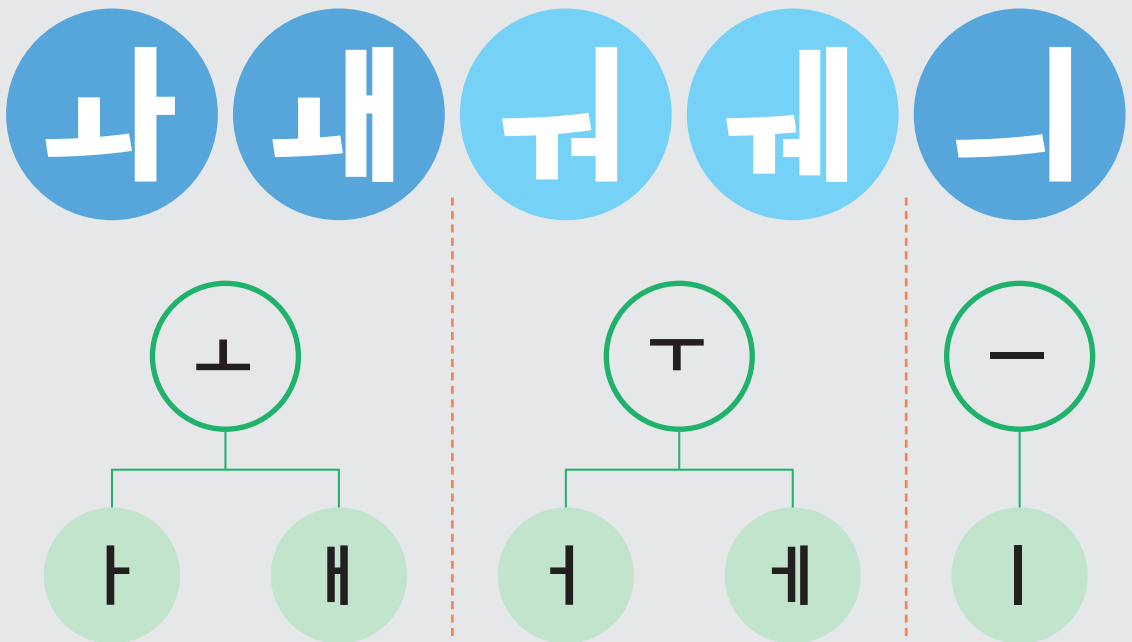


★ ‘ㅗ’와 ‘ㅛ’가 오늘날에는 거의 구별되지 않고 발음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ㅏ’와 ‘ㅑ’의 발음도 거의 같아요.

🔊 Listen and repeat them back to back.

으 야 여 요 유 애 예 와 왜 워 웨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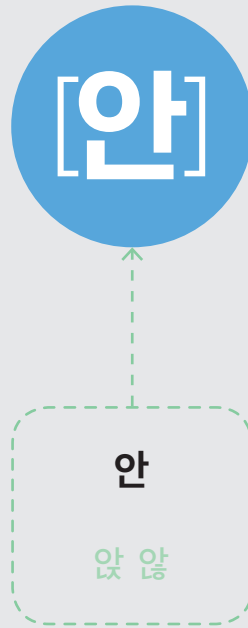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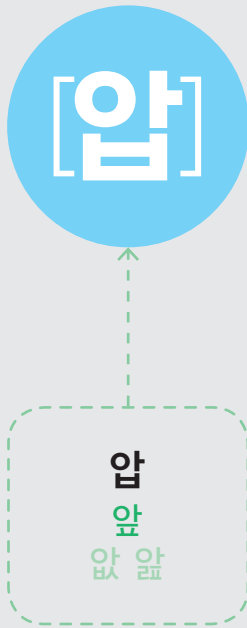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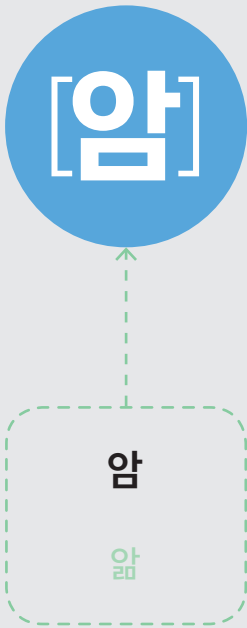
이중 모음은 두 단모음의 모양과 소리가 합해진 모음이에요.



🔑 Pronunciation Tip

두 개의 모음을 아주 빠르게 연속적으로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단모음과는 달리, 시작할 때의 입모양과 끝날 때의 입모양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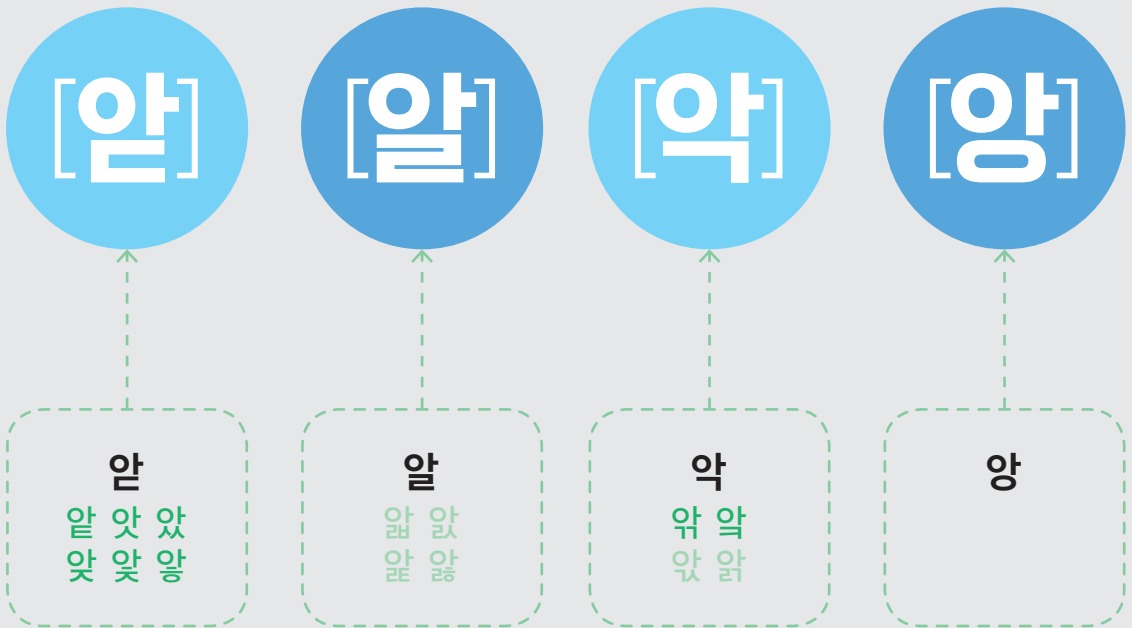
• 받침



🔊 Listen and repeat them back to back.

🔊 ㅁ ㅂ ㅇ ㅁ ㅂ ㅁ ㅂ ㅁ ㅂ ㅁ ㅂ ㅁ ㅂ

글자의
맨 아랫자리에는 여러 자음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일곱 개의
소리로만 나요.



🔑 Pronunciation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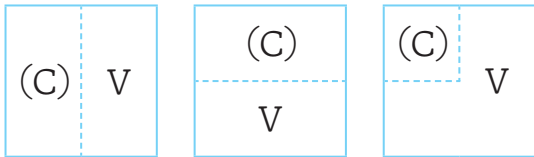
받침이 발음되는 위치, 즉 한 글자의 발음이 끝날 때의 발음 위치, 다시 말해, 두 발음 기관이 맞는 위치가 점점 깊어질 거예요.

‘받침’은 한 글자의 바닥에 위치하는 마지막 자음이다. 받침은 뒷받침해준다는 의미의 동사인 ‘받치다’의 명사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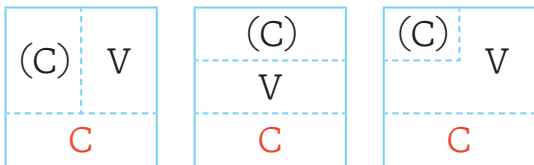
받침이 있고 없고는 단지 스펠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받침이 오는 데에 무슨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시에 있는 ‘아’, ‘규’, ‘뷔’는 받침이 없는 글자이다. 하지만 ‘성’, ‘독’, ‘완’은 각각 ‘ㅇ’, ‘ㄱ’, ‘ㄴ’의 받침을 가지고 있다. 그 마지막 문자를 각각 ‘받침 ㅇ’, ‘받침 ㄱ’, ‘받침 ㄴ’이라고 한다.

‘ㅇ’은 글자의 첫 소리로 올 때에는 아무 음가가 없지만, 받침 자리에 올 때에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



Ex. 아, 규, 뷔
▶ 받침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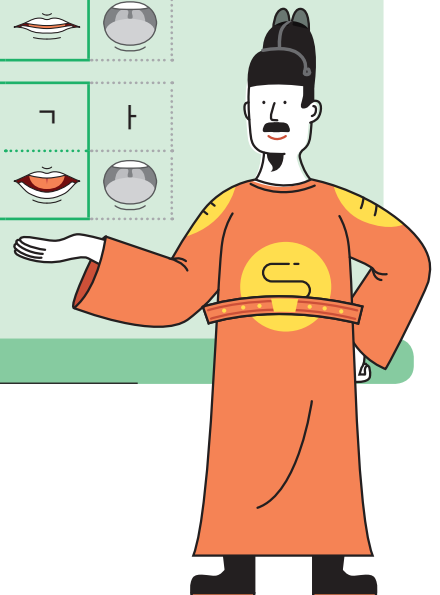
Ex. 성, 독, 완
▶ 받침 O

Key | Pronunciation Key

'암'을 발음한다고 할 때, '아마(ㅏ+ㅓ+ㅏ)'에서 '아ㅓ(ㅏ+ㅓ)'까지만 발음하고 멈춘다고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해, '암'을 발음할 때, '아마'라고 발음한다고 생각하면서 두 발음 기관(두 입술, 혀와 윗니, 혀와 입천장 등)이 입 속에서 맞닿는 순간 바로 멈춰 버려라. 그 이후 입 밖으로 공기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은 받침 ㅅ을 제외한 다른 받침들에도 적용된다.

암	ㅇ	ㅏ	ㅓ	ㅏ	암	ㅇ	ㅏ	ㅓ	ㅏ
앞	ㅇ	ㅏ	ㅕ	ㅏ	안	ㅇ	ㅏ	ㄴ	ㅏ
알	ㅇ	ㅏ	ㄷ	ㅏ	앗	ㅇ	ㅏ	ㅈ	ㅏ
앗	ㅇ	ㅏ	ㅅ	ㅏ	앗	ㅇ	ㅏ	ㅆ	ㅏ
알	ㅇ	ㅏ	ㄹ	ㅏ	악	ㅇ	ㅏ	ㄱ	ㅏ



CHAPTER 03

연결 받음



for MP3

of Chapter 3. Linking Sounds



받침이 다음 글자와 연결될 때에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받침의 발음 위치와 그 다음에 오는 단어 첫음절의 발음 위치가 멀 때,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단어를 발음하도록 해 주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1. Pronounce Connectedly

1. 이어서 발음하기(연음)

2. Pronounce Similarly

2. 비슷하게 발음하기(동화)

3. Pronounce Strongly

3. 강하게 발음하기(경음화)

4. Pronounce Harshly

4. 거칠게 발음하기(격음화)

자모로 말하기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의 앞 자음만 사용하거나,
특정한 모양과 비슷한 모음만 사용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나
사적인 자리에서만 사용해야 해요.



한글 예쁘게 쓰기

한국어 글자는 음절 구조에 따라 크기와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인조차 깔끔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이 코너에서는 예쁜 손글씨를 위한 몇가지 팁을 알려 줄게요.

이걸 끝내고 나면, 당신은 한글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미리 축하해요!

TIP 01. 크기와 위치

각 자모의 크기와 위치는 그 글자의 음절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그 구조에 맞추어 같은 글자라도 다르게 써야 해요.

TIP 02. 네모 하나

네모가 하나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맞추어 글자를 써 보세요.

TIP 03. 선 두 개

이번에는 두 개의 선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이에 맞추어 똑바로 써 보세요.

다양한 글자 모양

“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한글 손글씨도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쓰여요.

아래에 당신을 헛갈리게 만들 수 있는 자음들을 준비해
봤어요.

